



3면

"남원 공공이대 설립 약속 이행하라"

2022년 9월 20일 화요일(음 8월 25일) 제3102호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흥제로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 출연기관과 '새로운 전북' 구현

김관영 도지사, 도내 16개

기관 찾아 공감행정 나서

"전북발전 이루는  
중요한 역할 담당"

바이오진흥원 등 시작  
내달까지 직접 방문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의 16개 출연기관을 직접 찾아 전북발전을 위한 공감행정을 펼치고 있다.

김 지사는 19일 전북바이오융합진흥원 진흥원과 콘텐츠융합진흥원을 시작으로, 20일 군산의료원, 지동차융합기술원 등을 비롯해 10월까지 16개 출연기관을 직접 찾아 공감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도정과 출연기관과의 현장 소통보고회는 민선 8기 도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향후 도정 운영에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관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현안과제와 기관별 혁신방안에 대한 토론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먼저 이날 오전에 진행된 바이오융합진흥원 업무보고에서 농생명 산업 수도인 전북에서 농생명·바이오산업은 활성적으로 함께 해야 할 혁신성장 동력임을 강조하며, 전북만의 특화된 농생명 인프라를 활용한 미래먹거리 창출 등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추진을 주문했다.



전북도 출연기관 현장 소통 업무보고회가 19일 전북바이오융합진흥원에서 시작된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입주기업을 둘러보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어 콘텐츠융합진흥원에

서 "전북은 전년을 내려온 전통 역사문화콘텐츠가 집약된 곳이다"며 "전북의 특성이 녹아있는 K-콘텐츠 개발과 그에 필요한 인력양성 등 기반구축을 통해 전북에서 만들어진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출연기관들은 기관별 주요 현안과 국가공모사업 구체화 방안, 민선 8기 도정 현안에 발맞춘 조직정비 등 구상을 제시했고, 전북의 경쟁력이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 등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기관운영 방향을 내놨다.

김 지사는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찾고 지역별전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도정의 한 축인 출연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이해당사자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도민이 잘사는 전북을 만들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하고 명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또 "그동안 출연기관들이

축적해온 역량과 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가시적으로 보여드려야 할 때"라며 "도민이 실제 생활하는 일터, 쉼터, 숲바다에서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실현력을 확보하기 위해 출연기관들이 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앞으로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내용과 도지사 당부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은 물론 혁신과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스포츠 마케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순창군이 역도팀과 여자 소프트테니스 팀 창단을 계획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실업팀 창단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정강선 회장의 꿈꾸는 노력도 한몫했다는 평이다. 실제 정 회장은 양 영수 순창체육회장과 자속적으로 최 영일 군수에게 팀 창단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꿈꾸는 산업인 스포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쳐 지역 경제 활성화

### 순창 역도·女 소프트테니스 실업팀 창단 '진행 중'

#### 창단 시 학교 운동부 연계 선순환 시스템 구축

를 비롯해 국내·외로 지역을 홍보하고 있는 죄영일 군수 역시 체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순창군은 순차적으로 역도팀과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창단을 준비하고 있다. 역도팀과 소프트테니스팀이

창단 될 경우 순창군은 기존 남자 소프트테니스팀을 비롯해 총 3개의 팀을 운영하게 되면 역도와 소프트테니스의 고장으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먼저 역도의 경우 순창북중과 순창고 등 그동안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무수히

많은 업적을 기록, 전북 체육의 위상을 드높였다. 지난 2009년 개최한 영화 '킹콩을 들다'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소프트테니스의 경우 순창군 육성 종목이자 초·중·고 운동부가 틴타이 구축돼 있고, 동호인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업팀이 창단되면 학교 운동부와 연계되는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돼 우수 선수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선수들의 진로문제도 해갈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성 기자

## 초가을 낭만과 함께

고창모양성제,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성전 재연·메타버스 체험·공연 등 다채

재연된다.

▲ 어울림 - 가상세계에서 즐기는 모양성  
올해 모양성제는 메타버스를 처음으로 축제장에 도입해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축제장을 마련했다.

고창 모양성은 조선 단종 원년(1453년) 외침을 막기 위해 호남과 제주도 19개 현의 주민들이 힘을 모아 축성한 읍성이다.

고창군과 군민들은 축제정신을 기리고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하기 위해 50년의 세월 동안 매년 축제를 열어왔다.

▲ 즐거움 - 화려한 공연, 멋진 포토존, 먹거리까지!

어두웠던 모양성에 아름다운 빛으로 유등조형물을 곳곳에 설치해 이간 포토존이 마련된다. 또 낭만 춤전 버스킹과 모양성 달빛극장 등 불거리 즐길거리 제공해 방문객을 지역내 머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 고창의 대표음식인 장어와 국빈민전에 오른 한우를 할인 판매하고 고창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고창의 특신품을 음식으로 판매함으로써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존 축제음식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깊어가는 가을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며 풍성한 즐거움을 즐기고자 마련된 '제49회 고창모양성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진안** 재밌는데  
올거야?

10.7 (금) 진안고원시장

10.8~10 (토) 마이산 북부

전북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60

# 홍삼 축제

## 2022 JINAN RED GINSENG FESTIVAL

온 가족이 함께하는 다양한 어린이공연

어린이뮤지컬 구름빵, 버블쇼, 벌룬쇼, 매직쇼 등

놀칠 수 없는 진안홍삼축제만의 이색프로그램

진안홍삼킹덤 [낚시킹(홍삼낚시), 힐링킹, 버블킹(비누방울놀이), 호미킹(모래놀이), 암기킹]

홍삼노래자랑,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줄다리기대회, 전국 홍삼팔찌대회

10.8 (토) 19:00 백세인생, 천년기운 콘서트



김완선



서지오



최성수

10.8 (토) 15:30 청소년문화제



경서예지

10.9 (일) 17:00 진안고원 트로트 페스티벌



홍진영



조향조



현숙

10.10 (월) 13:00 진안향우회 만남의 날



우연이



레이디티

10.10 (월) 17:00 홍삼노래자랑



홍경민



김혜연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  
2020~2023 문화관광축제  
주 관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문의처 063-430-2391-3  
www.jinan.go.kr/festival